

JCR의 영향력지수 순위를 활용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평가의 한계

Limitations in Using JCR Impact Factor Rankings for LIS Journals

신은자 (Eun-Ja Shin)*

초록

최근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연구업적 평가에 JCR의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분류가 영향을 주고 있어 주목을 끈다. 도서관학·정보학 핵심 학술지에 출판하면 영향력지수 순위에서 밀려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내에서 영향력지수 상위권인 MIS 학술지에 출판하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JCR의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속한 학술지의 세부 주제영역을 규명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술지 저자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과 MIS의 교차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헌정보학과 MIS 간의 교차점은 크지 않았고, 연결강도도 강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소재 문헌정보학과 개설 대학의 약 55%가 JCR의 주제 카테고리별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순위를 구성원의 연구업적 평가에 직접 반영하고 있었다. 이로써 JCR의 주제 카테고리 분류가 연구자의 연구업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학술 출판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업적평가 기준의 문제점은 시급히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JCR's categorization significantly impacts the evaluation of research achievements in the field, particularly in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cience (IS & LS). Publishing in prestigious IS & LS journals often leads to lower evaluations due to their lower impact factor rankings. In contrast, publishing in higher-rank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 journals classified under the IS & LS category is evaluated more favorabl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sec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and MIS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uthors. This analysis wa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at identified detailed subject areas of academic journals categorized under the IS & LS category in the JC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subfields of LIS and MIS was not substantial, and the strength of the connection was weak. Additionally, approximately 55% of universities in Seoul with LIS departments use JCR's journal rankings by subject category to assess research achievem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JCR's subject category classification may negatively influence researchers' evaluations and potentially distort the academic publishing landscape. In the future, the issues with research achievement evaluation standards will need to be supplemented and impro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valuable fundamental data for policy improvement.

키워드: 학술지, 영향력지수, 학술지 순위, 연구업적 평가, 문헌정보학, JCR, 카테고리 분류

Journal, Impact Factor, Journal Ranking, Research Achievement Evaluation, LIS, JCR, Categorization

*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세종대학교 미디어 어널리틱스 연구소장(ejshin@sejong.ac.kr)
논문접수일자 : 2024년 8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24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24년 9월 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3): 57-76, 20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4.35.3.057>

* Copyright © 2024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현재 대학, 연구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자의 연구업적 평가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학술지의 질을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자주 있다(Khurshid, 2014; Safón & Docampo, 2023; Tseng & Tsay, 2013; Zhao & Wolfram, 2015).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을 통해 영향력지수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이의 확산 및 활용을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반면에 JCR의 주제 카테고리별 학술지 영향력지수를 연구업적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Frey & Rost, 2010; Mason & Singh, 2022; Miró et al., 2015; Seglen, 1997; Tseng & Tsay, 2013; Viiu & Păunescu, 2021).

JCR의 주제 카테고리는 인용분석에 기초하고 있어 객관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동일 카테고리에 속한 학술지라 할 지라도 영향력지수의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여러 학문 분야가 접목된 다학제적 카테고리의 경우 JCR에서 동일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세부 주제분야별 영향력지수 차이는 현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JCR에서 문헌정보학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cience'이다. 이 카테고리는 정보학(information science)과 도서관학(library science)을 포괄하며, 컴퓨터공학, 커뮤니케이션, 경영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보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cience' 카테고리를 이하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로 지칭하고자 한다. 학문의 형성 시기와 독이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칭하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JCR에 의하면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속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는 최대 21.0, 최소 0.1이다. 영향력지수 21.0인 학술지는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이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권위있는 학술지로 알려져 있는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JASIST)의 영향력지수는 3.5에 머무르고 있다. 즉, JASIST는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속한 84종의 학술지 가운데 영향력지수 34위, 백분위 60%, 사분위수 Q2로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중간 정도의 위상이다. JASIST는 북미 대학의 학장 및 대학도서관장 56명이 문헌정보학 학술지 71종 가운데 으뜸으로 선정했을 만큼 인지도가 높다(Nisonger & Davis,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JASIST를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내에서 중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꼽히는 JASIST가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내에서 영향력지수 중위권에 머무르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SSCI 내에서도 영향력지수 최상위권이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또는 경영학 학술지가 이들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상당수 포함됨으로써 순위를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들 경영학 학술지의 영향력지수가 최상위인 것은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Huang et al., 2019; Tseng & Tsay, 2013). 경영학 분야는 학문의 발달속도가 빨라 연구성과가 신속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많고, 연구성과를 공유할 독자층도 상대적으로 충분하다. 즉, 이 분야는 학계에 주목을 끄는 연구성과가 출판될 경우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인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논문당 참고문헌수가 많은 것도 영향력지수 산출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상황, 현상들을 폭넓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JCR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 내 영향력지수 순위를 직접적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보상과 업적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JCR 영향력지수 상위 10% 내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할 경우 타 학술지 출판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연구자에게 준다는 보고가 있다(Tseng & Tsay, 2013). 결과적으로 권위있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예컨대 영향력지수 상위 40%인 JASIST에 출판한 문헌정보학 연구자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반면,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지형상 중심 또는 핵심의 위치에 있지 않은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MIS) 계열 학술지에 출판한 문헌정보학 연구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이들 MIS 계열 학술지가 문헌정보학 학술지군의 중심부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연구업적 평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Järvelin & Vakkari, 2022; Ni, Sugimoto, & Cronin, 2013; Ni, Sugimoto,

& Jiang, 2013; Tseng & Tsay, 2013).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어려운 난제로만 인식하고 방관한다면 출판 학술지 선택의 쏠림 및 왜곡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연구자의 연구 의욕 또한 저하될 것임은 자명하다. JCR 해외 학술지에의 출판을 권면하는 국내의 대학이 많은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국내 대학에서 JCR의 주제 카테고리별 학술지 영향력지수 순위를 구성원의 임용, 승진, 인센티브에 직접 반영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도 올바른 상황 인식과 그에 걸맞은 해결 방안 모색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MIS 학술지까지 포함하는 현행 JCR의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분류가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연구업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해외에서는 JCR의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속한 학술지에 관한 분석을 이미 수차례 수행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들은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내에서 세부 주제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MIS 학술지가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포함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머물고 있고, 이의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의 세부 주제영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이 카테고리 학술지와 자주 중복되는 타 주제 카테고리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의 세부 주제영역별 영향력지수는 어떠한가? 타 주제 카테고리에 중복 수록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순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JCR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에 출판한 MIS 및 경영학과 소속 저자의 비중은 어떠한가? 반면에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MIS 분야 학술지 저자로 참여한 문헌정보학과 소속 저자는 얼마나 되나?
- 연구문제 4. 서울 소재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는 교원 연구업적 평가에서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순위를 직접 반영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나?

위 연구문제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얻어진 이 연구결과는 향후 JCR의 학술지 영향력지수 순위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세부 주제분야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논문의 동시인용법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Åström, 2007; Sugimoto et al., 2008). 일부는 저자-학술지 쌍을 분석하거나(Ni, Sugimoto, & Cronin, 2013), 여러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학술지 군을 규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Ni, Sugimoto, & Jiang, 2013; Xie et al., 2020).

Sugimoto et al.(2008)은 1977년부터 2007년까지 출판된 문헌정보학, MIS 학술지 48종을 각각 분석하였다. 두 분야는 정보의 축적, 검색, 배포, 이용 관련 기술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분석결과 MIS 논문이 문헌정보학 논문을 인용하는 것은 전체의 4.18%였다. 반면에 문헌정보학 논문이 MIS 논문을 인용하는 것은 18.43%였다. 이는 MIS 논문의 영향력이 문헌정보학 논문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MIS 학술지 10종에서 인용의 65%가 발생할 만큼 특정 학술지에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 MIS 학술지에서 자주 인용하는 문헌정보학 학술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쏠림이 관찰되었다. 또한 연도가 경과할수록 MIS와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을 동시에 인용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7.88%(1977-1986), 21.60%(1987-1996), 70.52%(1997-2006)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동시인용 지형도에서 MIS 학술지는 느슨한 분포를 보인 반면, 문헌정보학 학술지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좁고 응집력이 강한 모양새였다.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JCR 2008년판에서 58종을 수집해 분석한 연구 2편을 들 수 있다. Ni, Sugimoto, Cronin(2013)은 출판 학술지가 일치한 저자들은 서로 유사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한 VAC(Venue-Author Coupling) 모델을 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는 도서관학, 정보학, 특화 도서관학·정보학(specialized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MIS 등 네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서관

학과 정보학 군집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중심에서도 멀지 않았다. 반면에 MIS 군집은 중심에서 멀었고, 상대적으로 타 군집과 소원한 양상이었다. 심지어 유사도 임계치 0.2일 때 다른 군집과 완전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도서관학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0.63인 반면, MIS 학술지는 2.31이었다. 이처럼 영향력지수 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은 학술지의 성격도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MIS 학술지가 계속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남아 있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이 연구는 주장하였다. 또한 Ni, Sugimoto, Jiang (2013)의 연구에서는 분석 학술지의 네트워크 밀도가 0.9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보학 군집은 다른 군집과의 연결성이 강하면서도 영역이 넓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도서관학 중심과 정보학 중심을 잇는 학술지로 ARIST의 존재가 돋보였고, 모든 학술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학술지도 7종 있었다. 이 가운데 JASIST는 저자 집단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MIS 학술지는 영향력지수 수치는 높은 반면, 다른 군집과의 연결성은 매우 약하다는 점에서 정보학 학술지들과 대조를 보였다. 일례로 MIS Quarterly는 다수의 저자 논문이 출판되고 있고, 카테고리 내 영향력지수 순위가 24위에 달할 만큼 높지만, 대부분의 저자는 이 학술지에 출판할 뿐 다른 학술지에 출판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에 관한 연구 가운데 Tseng과 Tsay(2013)의 연구는 보다 세분화된 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출판된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

리 학술지 50종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판된 66종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에서는 세부 주제 8개, 후자에서는 9개가 각각 도출되었다. 주요 세부 주제로는 정보검색, 계량서지학, 대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장서관, MIS가 있었고, 기타 오픈액세스, 지역 도서관 등의 소규모 주제도 있었다. 시각적으로 정보검색 학술지군은 상단에 흩어진 모양새였고, 계량서지학 학술지군과 겹쳐진 모습이었다. MIS 학술지는 다른 학술지군과 멀리 떨어진 채 가장자리에 고립되어 있는 양상이었다. MIS 학술지 연구논문의 저자는 대부분 MIS 및 경영학과 소속이었고, 컴퓨터공학, 커뮤니케이션학 소속 저자도 일부 있었다. 경영학과 소속 연구자가 정보검색, 계량서지학 학술지에 출판하는 예도 일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학제적인 연구논문 출판으로 인해 MIS 학술지가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저자에게 출판할 학술지 선택 시 혼선을 주지 않게 하려면 JCR이 보다 섬세하게 카테고리를 설정해 학술지를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에 관한 또다른 연구로 Huang et al.(2019)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MIS 학술지에 비해 문헌정보학 학술지가 영향력지수에서 하위로 밀려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 영향력도 그러한 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수록된 학술지 88종을 대상으로 출판논문수, 인용횟수, 인용 주제분야, 저자 소속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제별 학술지 분포는 도서관학 34종, 정보학 26종, 계량서지학 3종, MIS 25종 등이었다. 도서관학

학술지는 출판논문수가 많고 참고문헌수가 적은 반면, MIS 학술지는 출판논문수가 적고 참고문헌수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용 관행은 MIS 학술지의 영향력지수가 높아지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MIS 학술지 저자의 소속은 경영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문헌정보학 저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성격이 확연히 다른 두 분야의 학술지를 한 카테고리 묶어 영향력지수 순위를 매기는 현행 방식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따라서 현존하는 여러 지수(Eigenfactor, SNIP, SCImago Journal Rank)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동일한 학자가 복수의 학술지 편집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해당 학술지들의 관계를 추정하는 좋은 단서가 되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학술지의 유사성 지형도를 작성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Ni와 Ding(2010)은 2008년 JCR에 수록된 도서관·정보학 학술지의 편집위원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였고, 전체 편집위원의 약 10%가 여러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겸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지어 한 명이 6종의 학술지 편집위원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편집위원직 중복을 통해 얻어진 141개의 학술지 쌍을 기초로 이들은 모두 네 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연구 중심 문헌정보학(research-oriented LIS), 실무 중심 문헌정보학(practice-oriented LIS), 커뮤니케이션, MIS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 중심 문헌정보학 학술지인 JASIST와 ARIST는 지형도의 중심에 있었고, MIS 군집은 다른 세 군집과 확연히 떨어진 곳에 있되 커뮤니케이션 군집과

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흥미를 끌었다. MIS 군집내 학술지는 모두 8종으로 군집내 상호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영향력지수 평균은 2.47이었다. 연구 중심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1.26이었고, 실무 중심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0.73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MIS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는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MIS 학술지는 도서관·정보학 카테고리가 아닌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들은 판단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핵심 학술지로 JASIST를 꼽고 있으므로 JASIST를 둘러싸고 있는 학술지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Van Eck와 Waltman(2011)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JASIST와 관계가 깊은 학술지 48종에 수록된 논문 12,202편에 대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세부 주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 논문의 세부 주제영역으로 도서관학, 정보학, 계량서지학 등이 있었다. 도서관학과 계량서지학은 서로 강하게 연결된 모습인 반면, 인용빈도 측면에서는 계량서지학이 정보학 보다 오히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영역의 규모는 서로 비슷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JASIST 관련 학술지를 분석한 이 연구결과에서 MIS 군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편 인용분석이나 네트워크분석이 아닌 전문가집단에게 주제분야를 규명하게 한 연구도 있다. Abrizah et al.(2015)는 JCR 2011년판에 수록된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 83종에 대하여 저자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게

주제분야를 파악하게 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학 39종, 정보학 23종, 정보시스템 21종, 기타 25종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력지수 최고 사분위인 Q1에 도서관학 1종, 정보학 8종, 정보시스템 11종 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MIS 분야 학술지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MIS 학술지에 도서관 관련 연구논문이 출판되는 예는 극히 드물고, 따라서 MIS 학술지를 도서관학·정보학의 세부 분야에 배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 보다는 MIS, 경영 및 IT 등의 카테고리를 별도로 마련해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업적 평가에서 JCR의 영향력지수를 적극 반영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노영희 외, 2022; 유소영 외, 2015). 또한 문헌정보학으로 제한하여 연구자의 연구업적 평가를 연구한 예도 있었다. 이혜경과 양기덕(2017)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출판한 연구논문 3,863편을 수집한 후, 저자 및 대학별 순위 산출을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연구업적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대학은 현재 국내외 학술지를 명확하게 등급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대체로 국내 학술지에 비해 국제 학술지에게 약 2 배의 배점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소재 사립대의 경우 학술지의 등급별 배점 차이가 컸다. 나아가 영향력지수를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대학도 6곳이나 되었다. 이들 대학에서는 국제 학술지의 경우 영향력지수를 추가 기준으로 채택해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연구업적이 매우 많거나 매우 적은 집단에서는 어느 평가기준을 적용하든지 대학별 순위에 변

동이 없는 반면, 연구업적 중간 구간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변동이 컸다. 다만 국내 선행연구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까지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JCR의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분류에 문제가 있고, 이를 그대로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연구업적평가에 반영하면 폐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JCR의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분류가 현재 문헌정보학 연구자가 출판하고 있는 학술지의 주제 영역을 잘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언하면, JCR의 주제 카테고리 분류를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연구업적 평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국내 대학에서는 JCR의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속한 영향력지수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개설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수집하고, JCR 영향력지수를 연구업적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까지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국내 대학이 JCR 주제 카테고리별 영향력지수를 연구업적 평가에 직접 반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방법

JCR의 주제 카테고리별 영향력지수를 사용하는 국내외 대학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주

제 카테고리에 어떤 학술지가 속해 있는 지에 학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연구는 JCR의 최근 버전인 2022년판에서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속한 학술지 84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1인 JCR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의 세부 주제영역 지형에 관한 분석은 선행연구 5편에서 필요한 내용을 수집해 완성하였다. 선행연구마다 세부 주제영역을 다소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연구는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에 앞서 주제영역명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 연구는 Ni, Sugimoto, Jiang(2013)이 제시한 네 개의 주제영역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이들은 도서관학, 정보학, 특화 도서관·정보학(specialized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MIS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화 도서관·정보학은 특정 토픽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술지를 의미한다. 예컨대 의학 도서관에 특화되어 있는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JAMIA),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그리고 법학 도서관에 특화된 Law Library Journal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분석대상 학술지 84종에 관한 주제영역별 분류에도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적극 활용하였다. 51종에 대해서는 Ni, Sugimoto, Jiang(2013)가 기분류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16종은 Abrizah et al.(2013)이 분류한 것을 수용하였다. 나머지 미분류 학술지 17종에 대한 주제영역명은 추가로 문헌정보학 박사 1인, 석사 2인에 의해 분류되었다. 이들은 해당 학술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 편집위원의

구성 및 소속학과, 최근 출판된 논문의 제목 및 키워드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미분류 학술지에 적합한 주제영역명을 최종 부여하였다. 이후 이 연구는 JCR 2022년판에서 수집한 각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영향력지수 순위, 영향력지수 사분위수, 중복 분류된 주제 카테고리명 및 영향력지수 순위 등을 주제영역별로 집계하였다(〈표 1〉~〈표 4〉 참조). 참고로 JCR은 현재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를 소수 첫째자리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연구문제 3은 경영학과 소속 연구자가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분석에 앞서 이 연구는 경영학 연구자가 정보검색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학술지에 출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선행연구에 주목하였다(Tseng & Tsay, 2013). 이 연구는 Tseng과 Tsay(2013)가 정보검색 관련 학술지로 정의한 바 있는 12종의 학술지에 2022년 출판한 저자의 소속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영학과 소속인지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MIS 학술지 18종에 2022년 출판한 저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문헌정보학과 소속인지를 조사하였다. 저자명, 소속학과 등의 데이터 수집에는 인용색인 Scopus를 활용하였다. Scopus는 연구자 프로파일이라 할 수 있는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연구자의 소속을 확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Scopus에서 확인이 불가하였고, 이 경우 학술지의 웹사이트에서 얻은 원문에서 저자의 소속학과를 최종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4는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연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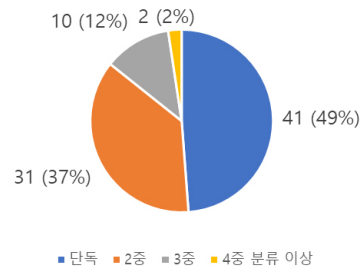
적 평가에서 JCR 영향력지수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서울 소재 문헌정보학과 개설 대학 11곳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은 자체 규정집을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있고, 이에 이 연구는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 이후 수집된 각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주의 깊게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Cronin, 2013; Ni, Sugimoto, & Jiang, 2013). 이 이외에 커뮤니케이션을 세부 주제영역에 포함시키거나(Ni & Ding, 2010), 컴퓨터공학의 세부 영역인 정보시스템을 포함시키기도 한다(Sugimoto et al., 2008). 세부 영역 대신 정보검색, 계량서지학, 대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장서개발, 오픈액세스, 지역도서관, MIS 등의 소주제로 분류한 예도 있다(Tseng & Tsay, 2013).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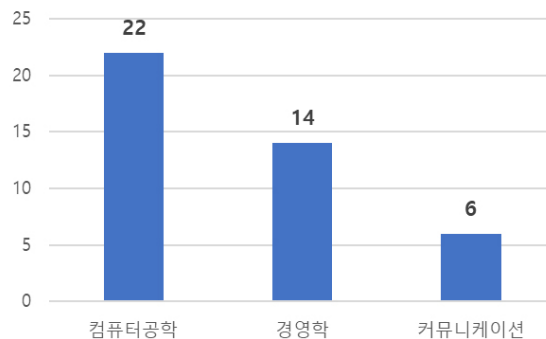
4.1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은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의 세부 주제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해당 학술지의 세부 주제영역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속한 학술지의 세부 주제영역은 도서관학, 정보학, 특화 도서관·정보학, MIS 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Ni, Sugimoto, &



<그림 1> JCR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의 타 주제 카테고리 중복 현황

<그림 1>은 JCR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 84종의 타 주제 카테고리 중복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단독 분류된 것은 41종으로 전체의 49%에 해당하였다. 타 카테고리에 이중으로 분류된 학술지는 31종(37%), 3



<그림 2> JCR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의 타 주제 카테고리에서의 중복 현황

곳 이상 중복 분류된 다학제성이 강한 학술지도 2종 있었다. JAMIA와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 2>는 JCR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와 자주 중복되는 카테고리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빈도 5 미만인 경우는 도표에서 제외하였다. 도서관학·정보학과 가장 많이 중복 분류되는 카테고리는 컴퓨터공학으로 22종(26.19%)의 학술지가 이에 해당되었다. 뒤이어 14종(16.67%)이 경영학 카테고리에 중복 분류되었고,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의 중복도 6종(7.14%) 있었다.

4.2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2>는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

고리 학술지 84종의 영향력지수를 네 주제영역 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서관학 19종, 정보학 30종, 특화 도서관·정보학 17종, MIS 18종에 관한 것이다. <표 1>은 도서관학 학술지 19종의 영향력지수 분포로 이들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1.43이었다. 이 가운데 Profesional de la Informacion가 영향력지수 4.2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와 Zeitschrift fu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의 영향력지수는 0.1로 낮았다. 영향력지수 사분위 Q2인 학술지 3종을 제외하고, 이들 학술지는 대체로 Q3 또는 Q4에 머물러 있었다.

<표 2>는 정보학 학술지 30종의 영향력지수 분포이고, 이들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3.17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지수가 높은 학술지

<표 1> 도서관학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분포

학술지명	영향력지수	순위	사분위	타 주제 카테고리명 및 순위			
				카테고리2	순위	카테고리3	순위
AFR J LIBR ARCH INFO	0.4	76	Q4				
COLL RES LIBR	1.8	53	Q3				
INFORM TECHNOL LIBR	1.8	54	Q3	COMPUTER SCIENCE, I	125/158		
INVESTIG BIBLIOTECOL	0.4	78	Q4				
J ACAD LIBR	2.6	45	Q3	COMPUTER SCIENCE, I	118/158		
J AUST LIB INF ASSOC	1.3	59	Q3				
LIBR INFORM SC	0.5	74	Q4				
LIBR INFORM SCI RES	2.9	41	Q2				
LIBR J	1.1	64	Q4				
LIBR QUART	1.8	55	Q3				
LIBR RESOUR TECH SER	0.5	75	Q4				
LIBR TRENDS	0.8	70	Q4				
MALAYS J LIBR INF SC	1.3	60	Q3	SOCIAL SCIENCES, INT	78/110		
PORTAL-LIBR ACAD	1.2	62	Q3				
PROF INFORM	4.2	27	Q2	COMMUNICATION	19/96		
REF SERV REV	1	67	Q4				
REF USER SERV Q	0.1	83	Q4				
RES EVALUAT	3.3	37	Q2	SOCIAL SCIENCES, BIO	14/45	SOCIAL SCIENCES, IN	25/110
Z BIBL BIBL	0.1	84	Q4				
	1.43						

〈표 2〉 정보학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분포

학술지명	영향력지수	순위	사분위	타 주제 카테고리명 및 순위			
				카테고리2	순위	카테고리3	순위
ASLIB J INFORM MANAG	2.6	44	Q3	COMPUTER SCIENCE, I	108/158		
CAN J INFORM LIB SCI	0.4	77	Q4				
ELECTRON LIBR	1.9	51	Q3				
ETHICS INF TECHNOL	3.6	33	Q2	ETHICS	8/57		
EUR J INFORM SYST	9.5	3	Q1	COMPUTER SCIENCE, I	7/158	MANAGEMENT	27/227
INF TARSAD	0.3	80	Q4				
INFORM CULT	0.6	72	Q4	HISTORY OF SOCIAL S	22/34		
INFORM DEV	1.9	52	Q3				
INFORM ORGAN-UK	6.3	16	Q1	MANAGEMENT	65/227		
INFORM PROCESS MANAG	8.6	4	Q1	COMPUTER SCIENCE, I	11/158		
INFORM RES	0.8	69	Q4				
INFORM SOC-ESTUD	0.3	81	Q4				
INT J COMP-SUPP COLL	4.3	26	Q2	EDUCATION & EDUCA	39/269		
J ASSOC INF SCI TECH	3.5	34	Q2	COMPUTER SCIENCE, I	86/158		
J DOC	2.1	48	Q3				
J INF SCI	2.4	47	Q3	COMPUTER SCIENCE, I	118/158		
J INFORMETR	3.7	32	Q2	COMPUTER SCIENCE, I	54/110		
J KNOWL MANAG	7	10	Q1	MANAGEMENT	54/227		
J LIBR INF SCI	1.7	57	Q3				
J ORGAN END USER COM	6.5	12	Q1	COMPUTER SCIENCE, I	28/158	MANAGEMENT	61/227
KNOWL MAN RES PRACT	3.2	38	Q2	MANAGEMENT	159/227		
KNOWL ORGAN	0.7	71	Q4				
LIBRI	1	66	Q4				
ONLINE INFORM REV	3.1	40	Q2	COMPUTER SCIENCE, I	94/158		
QUAL HEALTH RES	3.2	39	Q2	SOCIAL SCIENCES, BIO	14/45	SOCIAL SCIENCES, IN	25/110
REV ESP DOC CIENT	1.2	63	Q3				
SCIENTIST	1.8	56	Q3	MULTIDISCIPLINARY S	45/73		
SCIENTOMETRICS	3.9	30	Q2	COMPUTER SCIENCE, I	52/110		
TELEMAT INFORM	8.5	5	Q1				
TRANSINFORMACAO	0.6	73	Q4				
	3.17						

는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로 9.5였고, 가장 낮은 학술지는 Információs társadalom, Informacao & Sociedade-Estudos 로 각각 0.3이었다. 영향력지수 Q1 6종, Q2 8종, Q3 8종, Q4 8종으로 이들 학술지는 영향력지수 각 사분위에 고루 분포하는 양상이었다.

〈표 3〉은 특화 도서관학·정보학 17종의 영향력지수 분포이고, 이들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3.56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지수가 높은 학술지는 영향력지수 7.8인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였고, Law Library Journal 은 영향력지수가 0.2로 낮았다. 영향력지수 Q1 5종, Q2 5종, Q3 3종, Q4 4종이었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MIS 학술지 18종의 영향력지수 분포는 〈표 4〉와 같다. 이들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6.05로 네 주제영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International Journal of

〈표 3〉 특화 도서관·정보학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분포

학술지명	영향력지수	순위	사분위	타 주제 카테고리명 및 순위					
				카테고리2	순위	카테고리3	순위	카테고리4	순위
GOV INFORM Q	7.8	6	Q1						
HEALTH INFO LIBR J	3.8	31	Q2						
INFORM SOC	3.5	35	Q2	COMMUNICATION	27/96				
INT J GEOGR INF SCI	5.7	18	Q1	COMPUTER SCIENCE,	40/158	GEOGRAPHY	8/86	GEOGRAPHY, PHYS	5/49
J AM MED INFORM ASSN	6.4	15	Q1	COMPUTER SCIENCE,	30/158	COMPUTER SCIENC	23/110	HEALTH CARE SCIE	10/106
J COMPUT-MEDIAT COMM	7.2	9	Q1	COMMUNICATION	5/96				
J HEALTH COMMUN	4.4	25	Q2	COMMUNICATION	18/96				
J MED LIBR ASSOC	2	50	Q3						
J SCHOLARLY PUBL	1.3	61	Q3						
LAW LIBR J	0.2	82	Q4	Law	145/154				
LEARN PUBL	2.8	43	Q3						
LIBR HI TECH	3.4	36	Q2						
RESTAURATOR	0.4	79	Q4						
SERIALS REV	0.9	68	Q4						
SOC SCI COMPUT REV	4.1	29	Q2	COMPUTER SCIENCE,	46/110				
SOC SCI INFORM	1.1	65	Q4	SOCIAL SCIENCES, IN	78/110				
TELECOMMUN POLICY	5.6	20	Q1	COMMUNICATION	9/96	TELECOMMUNICATI	23/88		
	3.56								

〈표 4〉 MIS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분포

학술지명	영향력지수	순위	사분위	타 주제 카테고리명 및 순위			
				카테고리2	순위	카테고리3	순위
DATA BASE ADV INF SY	2.8	42	Q2				
DATA TECHNOL APPL	1.6	58	Q3	COMPUTER SCIENCE, I	131/158		
INFORM MANAGE-AMSTER	9.9	2	Q1	COMPUTER SCIENCE, I	6/158	MANAGEMENT	23/227
INFORM SYST J	6.4	14	Q1				
INFORM SYST RES	4.9	21	Q1	MANAGEMENT	103/227		
INFORM TECHNOL DEV	4.8	22	Q2	DEVELOPMENT STUDI	8/42		
INFORM TECHNOL MANAG	2.4	46	Q3	MANAGEMENT	189/227		
INFORM TECHNOL PEOP	4.4	24	Q2				
INT J INFORM MANAGE	21	1	Q1				
J ASSOC INF SYST	5.8	17	Q1	COMPUTER SCIENCE, I	53/251		
J ENTERP INF MANAG	6.5	13	Q1	MANAGEMENT	61/227		
J GLOB INF MANAG	4.7	23	Q2				
J GLOB INF TECH MAN	2	49	Q3				
J INF TECHNOL-UK	5.6	19	Q1	COMPUTER SCIENCE, I	41/158	MANAGEMENT	84/227
J MANAGE INFORM SYST	7.7	7	Q1	COMPUTER SCIENCE, I	17/158	MANAGEMENT	43/227
J STRATEGIC INF SYST	7	11	Q1	COMPUTER SCIENCE, I	24/158	MANAGEMENT	54/227
MIS Q EXEC	4.1	28	Q2	MANAGEMENT	127/227		
MIS QUART	7.3	8	Q1	COMPUTER SCIENCE, I	20/158	MANAGEMENT	49/227
	6.05						

Information Management는 영향력지수 21.0으로 전체 학술지 84종 중 1위, Information & Management는 영향력지수 9.9로 2위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학술지는 Data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로 영향력지수 1.6이었다. 영향력지수 Q1 10종, Q2 5종, Q3 3종이었고, 반면에 Q4 학술지는 전혀 없었다.

4.3 <연구문제 3>의 분석 결과

<표 5>는 정보검색 관련 학술지 가운데 경영학과 소속 저자가 1인이라도 포함된 논문을 집계한 것이다. 경영학과 소속 저자 출판이 활발한 학술지와 비중을 보면 Online Information Review 56.92%, IPM 25.19%, JASIST 18.87% 등의 순이었다. Electronic Library는 경영학과와 도서관학·정보학과 소속 저자의 공저 비중이 9.76%로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경영학과 소속 저자는 컴퓨터공학과 소속 저자와 공저하

는 경우가 많았다.

<표 6>은 도서관학·정보학과 소속 저자가 MIS 학술지에 출판한 경우를 집계한 결과이다. 도서관학·정보학과 소속 저자 출판이 활발한 학술지와 비중은 Data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22.22%,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ITD) 11.11%,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8.70% 등이었다. ITD는 도서관학·정보학과 소속 저자와 경영학과 소속 저자의 공저 비중이 11.11%로 높았다. 이 이외에 도서관학·정보학과 소속 저자의 공저 대상은 컴퓨터

<표 5> 정보검색(IR) 학술지에 출판한 경영학과 소속 저자의 논문수

학술지명	연간 발행빈도	전체 논문수	경영학과 저자		도서관학·정보학 경영학과 공저	
			논문수	%	논문수	%
ONLINE INFORM REV	7	65	20	56.92	4	6.15
INFORM PROCESS MANAG	6	266	67	25.19	15	5.64
J ASSOC INF SCI TECH	12	106	20	18.87	9	8.49
ELECTRON LIBR	6	41	7	17.07	4	9.76
J INF SCI	6	67	11	16.42	4	5.97
LIBR HI TECH	6	163	24	14.70	8	4.91
LIBR QUART	4	21	2	9.52	1	4.76
INFORM RES	4	63	3	4.76	1	1.59
LIBR INFORM SCI RES	4	46	2	4.35	2	4.35
J LIBR INF SCI	4	58	1	1.72	2	0.00

<표 6> MIS 학술지에 출판한 도서관·정보학과 소속 저자의 출판 현황

학술지명	연간 발행빈도	전체 논문수	도서관·정보학과 저자		도서관·정보학과 공저	
			논문수	%	논문수	%
DATA TECHNOL APPL	4	36	8	22.22	1	2.78
INFORM TECHNOL DEV	4	36	4	11.11	4	11.11
INFORM TECHNOL PEOP	8	115	10	8.70	5	4.35
J GLOB INF TECH MAN	4	14	1	7.14	1	7.14
INT J INFORM MANAGE	7	70	3	4.29	2	2.86
J GLOB INF MANAG	12	46	1	2.17	1	2.17
J ASSOC INF SYST	6	52	1	1.92	1	1.92
INFORM MANAGE-AMSTER	8	116	2	1.72	1	0.86

공학 소속 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서관학·정보학과 소속 저자가 MIS 학술지에 출판한 경우 보다는 경영학과 소속 저자가 정보검색 관련 학술지에 출판하는 예가 더 많았다. 특히 Online Information Review, IPM과 같은 소수의 특정 학술지에 경영학과 소속 저자의 출판이 쏠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연구문제 4>의 분석 결과

<표 7>은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서울 소재 대학 연구업적 평가에서 JCR 카테고리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반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11개교 가운데 A&HCI, SSCI, SCI 논문 평가시 JCR의 영향력지수 순위를 반영하고 있는 곳은 6개교로 전체의 54.55%였다. 이들 6개교에서 최상위 학술지로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면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내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순위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영향력지수 순위 기준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었다. 상위 5% 이내로 좁게 설정한 곳도 있었고, 반면에 상위 50% 이내이면 우수학술지로 인정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문헌정보학 교원이 JASIST 출판에 성공하더라도 서울 소재 2개 대학에서만 최상위 학술지 출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4개 대학에서는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의 최상위 학술지는 MIS 학술지인 것이다. 이들 4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원이 좋은 연구업적을 득하기 원한다면, 도서관학·정보학계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인 JASIST 출판을 목표로 해서는 곤란하다. 대신 영향력지수 높은 MIS 학술지에의 출판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JCR의 주제 카테고리에 어떤 학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크다.

<표 7> 서울소재 문헌정보학과 교원의 연구업적평가시 영향력지수 반영

대학명	영향력지수 반영	내용
덕성여대	○	상위 25%, 50%, 75%, 75% 초과
동덕여대	X	
명지대	X	
상명대	X	
서울여대	○	상위 10%, 20%, 20% 초과
성균관대*	X	
숙명여대	X	
연세대**	○	상위 25% 이내, 25% 초과
이화여대	○	상위 5%, 15%, 25%, 50%, 75%, 75% 초과
중앙대	○	상위 50% 이내, 50% 초과
한성대	○	상위 50% 이내, 50% 초과

* 승진·재임용이 아닌 인센티브지급에 영향력지수 활용, 상위 10%, 20%, 50% 이내, 50% 초과

** 학술지 등급 재판정을 요구하는 논문의 질적 평가 특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실제로 상당수의 서울 소재 문헌정보학과 개설 대학에서도 JCR이 정의한 주제 카테고리 내에서의 영향력지수 순위를 파악해 연구업적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는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서 어떤 학술지가 있는지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내 세부 주제영역은 대체로 도서관학, 정보학, 특화 도서관학·정보학, MIS 등이었다. 이들 선행연구 중에는 MIS 학술지를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도 있었다(Huang et al., 2019; Ni, Sugimoto, & Cronin, 2013; Ni, Sugimoto, & Jiang, 2013; Tseng & Tsay, 2013). 이에 이 연구는 MIS 학술지에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참여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실제로 두 분야 간 협업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도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는 재정의 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카테고리를 유지하기 보다 MIS 학술지를 별도의 카테고리에 배치하는 것이 학술 출판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의 주제영역 지형상 MIS 학술지 군집은 도서관학, 정보학, 특화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 군집과 거리가 멀다. MIS 학술지 군집은 다른 세 군집과 교류가 적고, 심지어 유사도 임계치를 2.0으로 할 경우 다른 세 군집과 연결이 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Ni, Sugimoto, & Cronin, 2013; Ni, Sugimoto, & Jiang, 2013).

둘째,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의 저자 및 편집위원은 JCR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 학술지의 주제영역을 규명할 때 MIS 학술지를 기타에 분류하였다(Abrizah et al., 2015).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MIS 연구자가 정보검색 관련 연구논문을 출판하는 예는 종종 있었지만, 반대로 문헌정보학 연구자가 MIS 학술지에 출판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도서관학·정보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지라 할 수 있는 JASIST와 관계가 깊은 학술지 48종의 주제영역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 MIS 군집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Van Eck & Waltman, 2011). 이는 MIS 학술지가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미미하고, 두 분야 학술지의 연결 네트워크도 강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MIS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는 다른 세 군집의 학술지와 차이가 크다. JCR 2022년판을 기준으로 도서관학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0.63인 반면, MIS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2.31이다. 이처럼 MIS 학술지의 영향력지수가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내 다른 주제영역 학술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MIS 학술지가 학문의 특성, 연구의 주제, 연구자의 인용행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세 군집의 학술지와 차이가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Huang et al., 2019).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보아 MIS 학술지가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에 계속 남아야 할 이유는 많지 않다. 다만 JCR은 본래 인용빈도에 기초해 학술지의 이용을 평가하여 학술지의 선정,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데서 출발하였고(Garfield, 2006), 다양한 주제 카테고리로 접

근할 수 있도록 여러 주제 카테고리에 중복 분류함으로써 학술지 이용증진을 촉진한다는 실용적인 의도도 갖고 있다. 따라서, JCR이 관련성이 적은 학술지까지 특정 주제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거나, 동일한 학술지를 여러 주제 카테고리에 중복 배치하는 것은 제작사의 고유 권한이며 방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들어 JCR의 특정 주제 카테고리를 재정의하라고 제작사를 압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 연구결과는 JCR의 도서관학·정보학 카테고리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MIS 학술지를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 선행연구 결과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JCR의 주제 카테고리내 학술지 배정에 관한 문제점과 국내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내 대학의 연구업적평가 기준안도 새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학계에서는 해외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연구업적 평가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학 및 기관이 학술지의 질을 가늠하는 정성적인 지표의 대안으로 JCR의 주제 카테고리별 영향력지수 순위를 직접 활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을 대학 본부가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인용색인에서는 JCR과 달리 학술지를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Scopus의 All Science Journal

Classification에서는 MIS 학술지를 도서관·정보학 카테고리로 분류하지 않는다(Scopus, 2024). 예를 들어 MIS Quarterly의 제1주제 카테고리는 'Information Systems and Management'이고, JASIST는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카테고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술지의 JCR 영향력지수 순위가 해당 카테고리내에서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산출해 연구업적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합당하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정교하지 못한 학술지 분류로 인해 연구업적 평가의 왜곡을 초래하고, 연구자의 출판 학술지 선택에 혼선을 주며, 연구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러한 연구업적 평가 관행이 장기적으로 학술 출판 지형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굳이 객관적인 지수를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대학 및 관련 기관 스스로 h-지수, 논문별 피인용횟수, SCImago 학술지 순위, SNIP, 구글스칼라지수, 트위터 영향력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유소영 외, 2015; Khurshid, 2014; Zhao & Wolfram, 2015).

나아가 국내외 학술지의 정성평가 기준 마련에 문헌정보학계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 특히 신진연구자의 경우 해외 학술지 출판 없이 대학에 임용, 승진, 정년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유소영 외, 2015).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전문가집단에 의한 해외 학술지 평가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이를 정성적인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대학본부를 설득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Nisonger & Davis, 2005). 학문의 전통을 중시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구자가 출판한 학술지의 수준을 평가할 때, JCR

주제 카테고리별 영향력지수 순위를 참조할 뿐 이를 절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JCR 제작사에 서도 이와 같은 ‘영향력지수 순위의 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수 차례 경고한 바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Thomson Reuters, 2008). 실제로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학장이 추천하는 연구실적물 심사위원단(내부 3인, 외부 2인)에

게 연구업적의 정성평가를 하게 하는 국립대도 있다는 사실을 대학본부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다(서울대학교, 2020). 신진 연구자를 비롯한 모든 연구자의 사기진작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서라도 학술 출판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학계의 노력이 절실하며, 학내외의 구성원 모두 적절한 연구업적 평가기준과 시행세칙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영희, 강지혜, 김용환, 양정모, 이종욱 (2022). 학술 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업적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4), 93-11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4.093>
- 서울대학교 (2020).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출처: [https://www.law.go.kr/학칙공단/서울대학교교원인사규정/\(2249,20200828\)](https://www.law.go.kr/학칙공단/서울대학교교원인사규정/(2249,20200828))
- 유소영, 이재운, 정은경, 이보람 (2015). 연구성과평가 지침 리뷰 및 국내 적용 제안을 위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32(4), 249-272. <https://doi.org/10.3743/KOSIM.2015.32.4.249>
- 이혜경, 양기덕 (2017). 국내대학의 학술논문 연구업적평가기준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95-322.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295>
- Abriyah, A., Noorhidawati, A., & Zainab, A. N. (2015). LIS journals categorization in the Journal Citation Report: a stated preference study. *Scientometrics*, 102, 1083-1099.
<https://doi.org/10.1007/s11192-014-1492-3>
- Åström, F. (2007). Changes in the LIS research front: Time-sliced cocitation analyses of LIS journal articles, 1990-2004.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7), 947-957. <https://doi.org/10.1002/asi.20567>.
- Frey, B. S. & Rost, K. (2010). Do rankings reflect research quality?.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13(1), 1-38. [https://doi.org/10.1016/S1514-0326\(10\)60002-5](https://doi.org/10.1016/S1514-0326(10)60002-5)
- Garfield, E. (2006). The history and meaning of the journal impact factor.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5(1), 90-93. <https://doi.org/10.1001/jama.295.1.90>
- Huang, M. H., Shaw, W. C., & Lin, C. S. (2019) One category, two communities: subfield

- differences in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cience” in Journal Citation Reports. *Scientometrics*, 119, 1059-1079. <https://doi.org/10.1007/s11192-019-03074-3>
- Järvelin, K. & Vakkari, P. (2022). LIS research across 50 years: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Documentation*, 78(7), 65-88. <https://doi.org/10.1108/JD-03-2021-0062>
- Khurshid, Z. (2014). Measuring the quality of contributions of Saudi authors to LIS journals using journal impact factor (JIF), SCImago journal rank (SJR), and google scholar metrics (GSM). *The Serials Librarian*, 67(1), 81-98. <https://doi.org/10.1080/0361526X.2014.909755>
- Mason, S. & Singh, L. (2022). When a journal is both at the ‘top’ and the ‘bottom’: the illogicality of conflating citation-based metrics with quality. *Scientometrics*, 127, 3683-3694. <https://doi.org/10.1007/s11192-022-04402-w>
- Miró, Ò., Brown, A. F., Graham, C. A., Ducharme, J., Martin-Sanchez, F. J., & Cone, D. C. (2015). Relationship between category size and journals’ impact factor: implications for emergency medicine journals and researchers. *Europ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22(5), 355-362. <https://doi.org/10.1097/mej.0000000000000184>
- Ni, C. & Ding, Y. (2010). Journal clustering through interlocking editorship informatio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7(1), 1-10. <https://doi.org/10.1002/meet.14504701202>
- Ni, C., Sugimoto, C. R., & Cronin, B. (2013). Visualizing and comparing four facets of scholarly communication: Producers, artifacts, concepts, and gatekeepers. *Scientometrics*, 94, 1161-1173. <https://doi.org/10.1007/s11192-012-0849-8>
- Ni, C., Sugimoto, C. R., & Jiang, J. (2013). Venue-author-coupling: A measure for identifying disciplines through author commun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4(2), 265-279. <https://doi.org/10.1002/asi.22630>
- Nisonger, T. E. & Davis, C. H. (2005). The percep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by LIS education deans and ARL library directors: A replication of the Kohl-Davis stud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6(4), 341-377. <https://doi.org/10.5860/crl.66.4.341>
- Safón, V. & Docampo, D. (2023). What are you reading? From core journals to trendy journals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field. *Scientometrics*, 128(5), 2777-2801. <https://doi.org/10.1007/s11192-023-04673-x>
- Scopus (2024). All science journal classification.

- https://service.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15181/supporthub/scopus/
- Seglen, Per O. (1997). Why the impact factor of journals should not be used for evaluating research. *British Medical Journal*, 314, 498-502. <https://doi.org/10.1136/bmj.314.7079.497>
- Sugimoto, C. R., Pratt, J. A., & Hauser, K. (2008). Using field cocitation analysis to assess reciprocal and shared impact of LIS/MIS field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9), 1441-1453. <https://doi.org/10.1002/asi.20863>
- Thomson Reuters (2008). Whitepaper using bibliometrics: A guide to evaluating research performance with citation data. Available:
<https://books.google.co.kr/books?id=fqDKXwAACAAJ>
- Tseng, Y. H. & Tsay, M. Y. (2013). Journal clustering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subfield delineation using the bibliometric analysis toolkit: CATAR. *Scientometrics*, 95, 503-528. <https://doi.org/10.1007/s11192-013-0964-1>
- Van Eck, N. J. & Waltman, L. (2011). Text mining and visualization using VOSviewer. <https://doi.org/10.48550/arXiv.1109.2058>
- Viiu, G. A. & Păunescu, M. (2021). The lack of meaningful boundary differences between journal impact factor quartiles undermines their independent use in research evaluation. *Scientometrics*, 126, 1495-1525 <https://doi.org/10.1007/s11192-020-03801-1>
- Xie, Y., Wu, Q., Zhang, P., & Li, X. (2020).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cience (IS-LS) journal subject categorisation and comparison based on editorship information. *Journal of Informetrics*, 14(4), 1-15. <https://doi.org/10.1016/j.joi.2020.101069>
- Zhao, Y. & Wolfram, D. (2015). Assessing the popularity of the top tier journals in the LIS field on Twitter.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2(1), 1-4. <https://doi.org/10.1002/pr2.2015.14505201009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Lee, Hye-Kyung & Yang, Kiduk (2017).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universities' journal publication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295-322.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295>
- Noh, Younghee, Kang, Ji Hei, Kim, Yong Hwan, Yang, Jeong-Mo, & Lee, Jongwook (2022). A study on improvements of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for enhancing the soundness of academic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4), 93-11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4.093>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faculty personnel regulations. Available: [https://www.law.go.kr/학칙공단/서울대학교_교원_인사_규정/\(2249,20200828\)](https://www.law.go.kr/학칙공단/서울대학교_교원_인사_규정/(2249,20200828)).

Yu, So-Young, Lee, Jae Yun, Chung, EunKyung, & Lee, Boram (2015). A review of declarations on appropriate research evaluation for exploring their applications to research evaluation system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Society*, 32(4), 249-272. <https://doi.org/10.3743/KOSIM.2015.32.4.249>